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0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시나이반도 휴양지행 항공기 운항 허용
 - 10.22 英 정부는 ISIS의 러시아 여객기 테러*로 금지된 이집트 '샤름 엘-셰이크' 휴양지에 항공기 운항이 4년만에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
 - * '15.10.31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기내 폭발물 폭발로 추락(사망 224)
- 유럽 의회, 터키 겨냥 경제제재 촉구 결의안 준비
 - 10.22 로이터는 EU 의원들이 "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공격을 규탄하고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했다"고 보도
 - * 결의안은 터키의 농업분야 수출품 우대동결 및 관세동맹 중지 등 제재 촉구

미주

- 美 국방부, 시리아 북동부에 일부 병력 잔류 방안 검토
 - 10.21 NBC방송 등은 美 국방부가 시리아 북동부에 ISIS의 재준동을 막기 위해 일부 병력을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
 - * 10.20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同 지역내 미군 200명 유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
- 美, 반유대인 공격계획·위협으로 12명 체포
 - 10.21 ABC뉴스는 반명예훼손연맹(ADL) 자료를 토대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사건('18. 10. 27, 사망 11·부상 7) 이후 유대인 상대 테러 음모 및 공격·위협 혐의로 백인우월주의자 12명이 체포되었으며, 올 상반기 반유대주의 사건은 780건('18년 상반기 785건)이 발생해 총격사건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태국, 아세안회의 대비 대테러 활동 강화

- 10.19 태국 경찰 당국은 ‘아세안+3 정상회의’(11.2~4)에 대비, 방콕 돈므앙 지역 등에 대한 대테러활동을 통해 총기 35정과 실탄 487발을 압수했다고 발표

○ 방글라데시, 로힝야 난민 일부 외판섬 수용 추진

- 10.20 로이터 통신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바산차르 섬에 난민 재배치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, 난민 캠프 과밀화로 피수용자 6천여명이 이주에 동의했다고 보도
 - * '17.8 미얀마가 로힝야족 반군 ‘아라칸 로힝야 구원군’(ARSA)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서자, 로힝야족 74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피신

중 동

○ 러시아, 시리아內 테러리스트 수감 감옥의 관리 공백 우려

- 10.21 현지언론은 러시아 국방장관이 아태지역 안보대화인 ‘상산 포럼’에서 “최근 터키군의 군사작전으로 시리아內 테러리스트가 수감되어 있는 12개 감옥이 경비 없이 남게 되었다”며 국제사회의 대처를 촉구했다고 보도

○ 탈레반, 중국에서 아프간 정부 측과 회담 예정

- 10.22 AP는 탈레반이 미국과의 평화협상이 결렬*된 이후 러시아·이란·중국 등을 방문하며 평화협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 중국의 주선으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간의 평화회담(10.28~29)이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

* 美-탈레반간 9차 협상결과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하였으나, 탈레반의 자살 폭탄테러(9.5)로 美軍이 사망하자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협상 중단 지시

방글라데시內 이슬람 시아파 겨냥 폭탄테러

- '15.10.24 새벽 2시경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2만여명의 시아파 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에 운집해 연례 종교행사인 '아슈라(Ashura)*'를 준비하던 중 폭탄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
 - * 이슬람력 1월 10일에 매회 열리는 시아파 최대 종교행사로 680년 수니파에 항거하다 순교한 2대 이맘 후세인(이슬람교의 예언자 모함마드의 친손자)의 추모제
- 다카 경찰청 차장은 신도들이 건물 안팎에서 기도행진을 준비하던 중 건물로 던져진 작은 폭탄 3개가 터졌다고 하며,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불발된 폭탄 2개를 수거했다고 발표
- 사건 직후 ISIS는 스스로 배후를 자처했으나,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“이번 테러와 극단주의 무장단체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”고 일축

< 제이쉬 에 모하메드(JeM) >

- (결 성) '00.3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파키스탄 귀속과 아프간內 외국군 축출을 위해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1.10), 미국('01.12), 영국('01.3) 등
- (활동지역) 인도령 잠무-카슈미르州, 파키스탄 펀잡州·페샤와르市, 아프가니스탄
- (조직규모) 500여명 추정
 - * 지도자 : 「마수드 아즈하」('68.7.10生)
- (활동수법) 인도軍 기지 등 하드타겟 공격과 군·경 또는 비무슬림(시아파, 기독교도 등) 살상 자행
- (주요테러)
 - '01.10 인도령 카슈미르 중심도시 스리나가르市 의회 자폭테러(사망 30명)
 - '16.9 인도령 잠무-카슈미르州 '우리'지역 주둔 인도軍 부대 기습(사망 48명)
- (참 고) · '08.6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활동 집중에 따른 조직원 반발과 他이슬람 무장단체와의 마찰로 근거지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까지 확장